

담양, 동화 속 꿈 정원 ‘안데르센 동화마을’ 조성한다

담양군, (주)아트빌리지와 390억대 투자협약

“천년 담양 생태·문화 담은 복합관광휴양단지”

담양군이 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 위해 복합 관광휴양단지인 ‘안데르센 동화마을’을 조성하기로 투자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25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주)아트빌리지(대표이사 심상철)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사항을 협의했다.

협약을 통해 담양군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지원과 협력을, 투자자인 (주)아트빌리지는 계획 수립과 설계 등 사업 시행 전반을 맡는다.

안데르센 동화마을은 금성면 금성리 일원 3만3000㎡ 부지에 39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안데르센 동화 테마공원, 전시시설, 숙박시설, 주차장 등 복합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형식 군수는 “안데르센 동화마을이라는 테마에 어울리는 멋진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해 주변 관광 자원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승재 기자



나주 소상공인 ‘주민소득 용자’ 지원

창업·운영자금 최대 5000만원 까지… 내달 10일까지 접수

나주시는 경기침체, 자금난 등으로 사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주민소득 용자 지원’ 사업 2차 신청을 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시민의 소득 사업 분야에 필요한 창업 또는 운영자금을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용자 지원은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에 근거, 소상공인 분야에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창업자금과 운영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는 창업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먼저 사업을 진행하고 지원 신청 서류를 시에 제출하면 농협 나주시지부에서 연리 1%(2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지원한다.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나주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사행성·유형업종 제외)으로 오는 6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주민소득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 2019년부터 소상공인 33명에 대해 약 10억원의 대출을 지원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시중 금리보다 저렴한 이율로 소득이 일정치 않은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 개발과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민소득 용자 지원 사업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일자리경제과,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나주=조승준 기자

해남 ‘저탄소 농업’ 친환경 벼 생산 확대

친환경 자재·인증 지원… 전국 최대 쌀 생산지 위상 제고

전국 최대 쌀 생산지인 해남군은 올해 친환경 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6개사업, 14억여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지면적(3만 5,000ha)을 보유한 해남군은 이중 2만 1,700ha가 논 경작지이다. 특히 친환경 인증면적의 50% 이상이 벼 작목으로, 군은 탄소중립에 따른 저탄소 농업의 확대와 소비자의 안전 농산물 소비 선호 등 농업 환경 변화에 따라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유도하고 농가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친환경 벼 생산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친환경 벼 육묘상자 처리제 1,000ha분을 농가에 공급해 육묘단계에서 각종 병해충을 친환경적으로 방제하고, 친환경 농업

추진 시 가장 어려운 제조작업에 새끼 우렁이 34톤(2,800ha분)을 공급한다. 이양 후 분담 및 농두명 제조를 위해 승용제초기 5대 등 총 18대도 공급해 제조작업 방제에 나선다.

또한 벼 뿌리 활착이 빠르고 왕우렁이 침식 피해가 적은 벼 포트양기 3대와 육묘상자 2만개를 공급해 고품질 벼 생산은 물론 노동력 절감 등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각종 농기계 사업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친환경 농업지역인 계곡면에는 친환경 벼의 집적화로 비산농약 등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500ha 규모의 친환경 단지를 조성하여 농약, 화학비료 감축 등 집적적인 관리를 통해 해남군의 친환경 농업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다. /해남=김동주 기자

장성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

민간 중심 관광활성화 ‘마을에온’ 출범

장성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 민간 중심의 사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사단법인 마을에온’을 구성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농촌의 지역자산과 주민조직을 활용해 자립적 발전기반을 만드는 사업이다. 장성군은 지난 2019년 공모에 선정돼 4년간 7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군이 추진 중인 사업은 축적산 편백숲을 매개로 한 ‘편백숲 어울림 치유여행 프로젝트’다. 편백숲을 치유관광지로 육성하고 마을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해 소득 향상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다.

2020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 조직한 장성군은 이후 ▲34개 주민조직체에 관광콘텐츠 확장 지원 ▲마을여행사, 생활관광서비스연구회 등 관광 활성화 주도 민간조직 육

성 ▲주민조직체 활동공간 제공을 위한 군 소유 유휴시설 발굴 및 리모델링 등을 추진했다.

4년 차에 접어든 올해에는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주민조직체 12개 팀을 선정해 관광콘텐츠 확장, 마을축제 운영, 여행코스 개발 등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이루는 것이 목표다.

사단법인 ‘마을에온’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종료 이후에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다. 장성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 주축이 되었으며, 3월 28일 발기인 총회에 이어 지난 4월 26일 정식으로 출범했다. 법인 이사장은 사업단 단장인 김용근 서울시립대 명예교수(관광학과)가 맡았다. /장성=심재식 기자

광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통한 공모사업 추진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 프로그램 활성화 기여

광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동 지역의 취약계층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역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마을복지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2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으로부터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5년째 추진하는 사업이며, 지난 4월 19일 공고를 통해 10개 지역의 프로그램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각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오는 30일~올해 11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별 공모사업은 ▲광양읍-홀몸 어르신 해피데이 생신상 지원 ▲봉강면-건강한 여름나기 ▲옥룡면-저소득 고령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옥곡면-The 안전한 Zip, 촘촘한 방충망 ▲진상면-우리들의 행복한 시니어 지원(주거환경 개선) ▲진월면-보행 보조기 지원 ▲다압면-건강한 계절 나기 나눔기트사업 ▲중마동-정(情) 나눔미 밀반찬 지원 ▲광영동-위드 코로나, 사랑나눔행

복Day ▲태인동-행복한 밥상 나눔이다.

이재호 광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번 공모사업의 특징은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을 비롯해 종마노인복지관, 광양지역활센터, 활각사진봉사단, 방진방봉사단 등의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최대한 발휘했다는 점이다”며 “지역사회의 잠재된 다양한 복지자원을 발굴·확충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자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서비스 중복·편중·누락을 방지하는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 협의체의 중요한 사명이다”고 밝혔다. /광양=조순희 기자

신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맞춤형 복지활동 시작

어려운 이웃 발굴 복지서비스 운영

신안군의 복지를 디자인하고 마을단위의 촘촘한 복지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최근 신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1일 압해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시작으로 8개 읍면에서 개최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에서는,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맞춤형 복지서비스 ▲긴급지원 ▲낙도미마용 ▲이동빨래방

사업 등의 신안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 복지사업의 이해와 함께 우리 주변의 살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복지서비스 연계 방안을 논의하는 등 코로나19로 움츠러들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에 기지개를 켜는 첫 단추가 되었다.

이와 함께 신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주관 자살 예방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이수를 통해, 의료요건이 취약한 농촌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자살을 예방하고,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지역의 생명지킴이’로서 능력도 배양하는 자리가 되었다.

신안군 관내 14개 읍면에 각각 설립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주민과 마을 대표, 기관·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200여명의 공공 및 민간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복지사업과, 마을단위 복지외제 발굴, 저소득 이웃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복지 코드네이터 역할을 하며, 민관을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되고 있다. /신안=박영태 기자

여수 화양면 나진리 ‘친환경 스마트 시내버스정류소’ 준공

실시간 버스정보시스템·와이파이·휴대폰 충전기 등 갖춰

여수시는 25일 화양면 나진리에 ‘친환경 스마트 시내버스정류소’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열린 준공식에는 한국동서발전(주) 임희조 신화남건설추진본부장과 여수시 공주식 교통과장, 문장곤 화양면장, 이장단과 마을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시에 따르면 나진리 시내버스정류소는 ▲실시간 버스정보시스템(BIS) ▲여수시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방범용 CCTV ▲무선 와이파이 ▲휴대폰 충전기 ▲냉난방기 ▲개방형 온열의자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전용 대기 공간 ▲자동문 등 다양한 스마트 시설을 갖췄다.

또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친환경 정류소 운영에 필요한 전력의 일부를 공급받게 된다.

한편, 이번 시내버스정류소 설치사업은 한국동서발전(주)의 농어촌지역 상생협력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농어촌지역 교통약자의 친환경 대중교통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1천만 원이 지원됐다. /여수=조일상 기자

순천드라마촬영장, 황금색 자랑하는 ‘금계국 물결’

5000㎡ 황금 닭 벼슬 펼쳐진 금계국 인기



순천드라마촬영장이 만개한 황금 닭 벼슬 5000㎡의 금계국 군락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상쾌한 기분’이란 꽃말을 가진 금계국은 여름의 시작을 알리며, 5월부터 개화하여 여름 한 철에만 볼 수 있는 야생화다.

시는 순천드라마촬영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상쾌한 기분과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꽃잎이 황금 닭 벼슬을 닮았다는 금계국 5000㎡ 단지를 조성하여 왔다.

달동네 능선을 따라 황금빛 꽃물결 세상이 드넓게 펼쳐져 있고, 멀리 보이는 60년대 건물들과 어울려 액자 속을 보는듯한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60~70년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세트장과 함께 과거를 추억하고 여유롭게 걸으며, 코로나19로 지친 삶에 활력과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드라마촬영장은 드라마 ‘사랑과 야망’을 시작으로 자이언트, 제빵왕 김탁구, 예쁜 동쪽, 빛과 그림자, 오월의 청춘, 파친코 등 70여편의 영화·드라마가 촬영되어 우리나라 대표 세트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순천=조순희 기자

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위원회 2차 정기회의

곡성군은 최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위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 청소년 안전망 실무위원회 2차 정기회의가 개최됐다고 25일 밝혔다. 곡성군 청소년안전망 실무위원회는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 3항에 따라 구성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실무에 관한 논의를 주로 수행한다.

이번 회의에는 곡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곡성군 인구조획과, 곡성중학교, 곡성경찰서, 보건의료원, 학교밖지원센터, 곡성군가족센터,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곡성지구위원회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청소년안전망을 활용한 통합 서비스 제공,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별 정보, ▲기관 간 협력 역량 강화 방안, ▲기관별 급년도 청소년 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안전망 운영과 더불어 개인 및 집단 상담, 1388 청소년 전화, 사이버 상담, 긴급 구조 및 임시보호, 청소년 통합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곡성=이상희 기자

화순 휴먼·음주 예방교육 9월까지 3000여 명 참여

화순군이 9월까지 지역 초·중·고 학생이 참여하는 휴먼·음주 예방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달부터 참여 희망 19개 학교 초·중·고등학교 학생 3015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시작했다. 전문 강사가 휴먼과 음주에 인체에 미치는 폐해, 금연의 필요성, 담배의 실제 등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는 학년별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제16차 2020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처음 휴먼을 경험한 연령이 13.6세로 조사됐다. 청소년의 휴먼과 음주는 질병발생 확률을 높이기 때문에 조기 예방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순군보건소 관계자는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금연과 음주 예방교육을 실시해 금연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고 흡연 등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유정현 기자

완도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올해까지 연장

완도군은 25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여 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여액만큼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올해까지 연장을 했다.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인하였거나 인하해준 것으로 약정한 건물주가 그 대상으로, 인하 비율만큼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한다.

감면을 원하는 임대인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6월30일까지 제출하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남기 후에도 연말까지 감면 신청을 하면 올해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감면과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 임대인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완도=이두식 기자